

· 도의원 출마예정자 인터뷰 ·

지난 호 군의원 출마예정자의 질의 답변에 이어 이번 호에는 전남도의원 출마예정자의 질의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남도의회는 정원이 58명으로 지역구에서 52명, 비례대표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수와 순천은 각 6명, 곡성, 구례, 함평, 진도에서는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2~5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장성군은 제1선거구(읍, 서삼, 북일, 북이, 북하)와 제2선거구(삼계, 삼서, 동화, 황룡, 진원, 남면)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도의원인 김한중, 유성수위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두 곳 모두 공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58명의 도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52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 자라다툼 또는 패거리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원들의 자질 시비를 벗어나 의회의 본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2022년 선거가 주목되는 이유다.



공통질문

1. 출마 이유는?
2. 지방의원인 도의원과 군의원이 어떻게 다르며 군의원과 다르게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도의원이 되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유는?
4. 도의원이 지역(장성)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5. 특정 정당이 광역시도의회 의원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6. 당원들에 의한 경선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은?
7. 도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유치하려면 군수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본인의 정치성향과 다른 군수가 당선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8. 다른 후보들에 비해 본인이 가진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 북일, 북이, 북하)



김 병 권

하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 도의회와 군의회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감시, 감사, 결산, 의결 등 업무는 같습니다. 다만 대민은 도민(200만)과 군민(4만7000)이 구분되며 예산 규모도 도 예산은 10조, 군 예산은 4천5백 억 원으로 차이가 큼니다.

도의회는 국회 축소판이라고들 합니다.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민들의 민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 민원을 도정에 연결하여 삶의 질이 향상된 행복한 장성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발전 구상으로 학문은 '장성'이라는 '문불여장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백양사와 장성호, 축령산, 황룡강을 있는 관광사업을 구축하고 스포츠 활성화, 문화예술 창달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다면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농연 회원으로서 1면 1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장성의 대표특산물로 전국화를 시도하고, 유통체제를 개선하여 생산 농가들이 실질소득을 올리는 구조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의원은 지역민의 민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물이 자원이 되는 기회의 시대에 영산강의 발원지나 다름없는 황룡강이 환경 우선주의에 부응하되 충분한 보호와 보상이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도지사가 같은 정당이라 하여 묵인하고 눈감아 주고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며, 부업화된 상임위는 의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하고 소외된 곳을 찾아 감시와 견제를 잘하겠습니다.

▲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지역민의 고뇌를 보았으며,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지역민과 함께했습니다.

▲ 낙후된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은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이 모두 지역발전에 공동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도의회 의정실에서 근무한 경험과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이 장점이며, 강하고 독하지 못한 것이 단점입니다.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 북일, 북이, 북하)



김 봉 수

주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능력을 도정 및 군정에 접목시켜 너도 나도 잘살고 행복한 미래의 전남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불태우고자 합니다.

▲ - 군의원 : 기초단체인 군의원은 행정기관과 견주어 '기관 대립형' 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 군의원 의무 :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무입니다.

- 군의원 권리 : 구성원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 구성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군의원 권한 :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권, 서류 제출 요구권 등이 있습니다.

- 도의원 : 도의회를 통해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도 전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도의원 의무 :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하여야 합니다.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도의원 권한 :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11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가집니다.

-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 :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도 조례 및 규칙 제정, 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조정, 행정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협의 사항 조정(2개의 지방자치 관련된 업무), 지방자치 단체조합의 지도 및 감독, 국가 사무 중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업무처리 및 지도 감독 등입니다.

▲ 상임위 : ①행정자치위원회 ②농수산위원회 ③건설분과 위원회
- 이유 : 행정자치위원회는 40여 년에 걸친 공직생활로 가장 업무 파악이 쉬운 위원회이기 때문이며 농수산위원회는 직접 농사를 짓고 농민의 마음을 이해와 공감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 광역(도)단체와 기초(군)단체 간에 가교 역할을 통한 지역화합과 균형 발전에 기여합니다.

▲ 조직의 일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고민을 많이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안에 따라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가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우선 참신한 정치 신인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자세와 지역사회에서 면장과 읍장을 했다는 인지도 측면에서입니다. 또 지역문화 창달을 구현하는 문화원장으로서 군민의 피와 땀과 눈물어린 삶의 이야기를 잘 알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군민이 답이다.” 군수와 많은 이야기를 통한 소통으로 군정 및 도정간에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점 : 참신한 정치 신인, 인지도 측면에서 높다고 봅니다.
→ 많은 사람들과 소통 및 군민 권리당원들과 인연이 있습니다.
단점 : 정치 초년생으로서 기존 당직자들과의 친화력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선거구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김 건 태

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장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일할 줄 아는 김건태 열심히 뛰겠습니다.

▲ 도의원과 군의원은 기본적인 목표나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군의회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및 정책을 다룬다면 도의회는 도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지역 내 현안과 정책들을 섬세하게 챙기며 전라남도 발전과 더불어 장성군 발전에 힘모아 민의를 대변하고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의회는 조금 더 넓게 보며, 넓게 생각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현실생활정치, 최일선에서의 지역 대변인이라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생각하며 복지현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성군 지역의 발전과 지역복지, 그리고 전라남도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화에 따라 복지환경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의 출마 이유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장성' '군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지역복지 공동체' 나아가서 농촌복지를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농림분야 특히 청년농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 일을 찾아 만들어 가는 김건태가 되고자 합니다.

▲ 제 고향인 장성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살 수 있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장성'을 만들어 가고자 오랜 사회복지 현장을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여러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민들끼리 품앗이 활동이나 지역 상생활동 등을 통해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비용 절감의 효과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지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날 선 비판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겸허하게 수용하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쳐야 하는 부분은 현 상황에 맞게 고쳐나가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정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견제와 감시는 절대다수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유불리를 떠나 다른 분들의 의견 또한 최대한 수렴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의 장점은 무슨 일든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며, 보기와 다르게 섬세함과 꼼꼼함이 있어 작은 부분까지도 잘 챙기는 것 또한 장점이며,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행동하고 어르신 세대와 더불어 청년 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적극적인 소통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패기와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일 잘하는 김건태가 되겠습니다.

▲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도의원에 당선되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제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역량을 100퍼센트 이상 보어드리고 제가 진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 되더라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임하며 당선되는 군수께서도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저 김건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젊다는 것입니다. 젊기에 두려움과 거침이 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분출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최대의 장점이자 저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을 현장에서 함께 해 왔던 복지 전문가로서 지역민들과 함께 젊은 패기와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지역과 소통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 일을 찾아 만들어 가는 김건태”



Profile

-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장성군체육회 이사
- 한농연장성연합회 이사
- 제5대 장성군의원(행자위원장, 산권위원장)
- 이개호 국회의원 보좌관
- 김한중 전남도지사 비서실



Profile

- 장성농업고등학교 졸업
- 전 장성을 총무계장
- 전 북이면장, 장성읍장
- 현 장성문화원장
- 현 장성군 다문화 가족협의회 고문
- 현 장성군 시각장애인 협의회 고문



Profile

- 동신대학교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전 장성군 체육회 이사
- 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대변인
- 현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
- 현 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 협회장
- 현 농성빛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공통질문

- 1. 출마 이유는?
- 2. 지방의원인 도의원과 군의원이 어떻게 다르며 군의원과 다르게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3. 도의원이 되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유는?
- 4. 도의원이 지역(장성)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5. 특정 정당이 광역시도의회 의결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안 되고

-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요?
- 6. 3선의 도(군)의원 활동 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구체적 사례를 들어서)과 아쉬웠던 점은?
- 7. 도의원을 군수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여 지나치게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8. 다른 후보들에 비해 본인이 가진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 복일, 복이, 복하)



윤시석

▲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군민의 심부름꾼 윤시석,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뛰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부지런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군의원과 도의원 시절 16년 동안 자연재해가 있을시 5개 읍면을 돌면서 하전이 범람하지 않았는지, 도로는 유실되지 않았는지, 농작물과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단 한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듯이 군민과 교류하며 이동장 회의나 읍 면 군 행사등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애로사항과 현안 문제를 파악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정직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나 보다는 우리를, 우리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익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대변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가장 일 잘하고 능력있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12년 동안 저는 27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100% 참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결산위원장부터 부의장까지 5번의 의장단에 당선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 해결을 가장 잘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장성군 장애인협회 후원회장으로 10여년 넘게 직책을 맡아 지내면서 장애우들과 함께 휠체어를 밀고 함께 동행하고 봉사해 왔었습니다. 재활증진대회를 통해서 꿈과 희망도 함께 심어 왔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살고싶고, 찾고싶고, 머무르고 싶은 장성. 정이 넘치는 따뜻한 장성을 위해서 더 보고 더 듣고 더 열심히 뛰어 장성발전에 기여하는 윤 시석이 되겠습니다.

▲ 도의원은 광역자치단체를 군의원은 기초자치 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라남도의 자치 사무에 관한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의 권한과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 농수산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전남도의회는 6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지는데 이미 5개 상임위원 에서는 업무를 수행해 보았고, 장성군은 농업군이라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병해 피해나 태풍피해가 많이 발생 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 시켜 농민들께서 생산에만 전념할수 있는 농촌 복지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우선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도로라든지 지방 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장성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어려운 곳에 도비를 투입하고 특히 축령산, 백양사, 장성면을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치 지형 특성상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감시와 견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농도인 전라남도에 뜻 밖의 F1그랑프리(세계자동차경주대회)로 인해서 시설비 8천억원과 개최권료 2천억원(4년간)등 총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있는 부분을 저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중단 시킨 일은 가장 보람되었던 의정활동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쉬웠던 일은 장성면 임구부터 작은재 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전액도비) 150 억원을 2015년도에 확보가 되었는데도 각종 민원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 기초의회 경험과 도의회의 경륜이 잘 조화가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 도비,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과 경륜이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점은 정직함과 청렴,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 이구요, 단점은 부드럽지 못한 강한 말투,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과정)
- 전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 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전 장성군장애인협회후원회장
-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 전 장성군의회,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제2선거구 (진원,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



김희식

▲ 오늘 군민과 함께, 전남과 장성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밝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 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장성군의회 3선 의원으로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지역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군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의 꿈을 실현해준 장성군민들에게 이제는 더 큰 봉사로 성원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군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을 넓혀 도의원으로 장성군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오직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우리 군민도 행복하고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의원의 역할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군의원은 해당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도의원은 군의원과 다르게 각 부문에서 정책이나 사업, 의안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단체정·약의회형의 취약한 실정에서 강단체정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독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회가 된다면 군의원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걱정없이 자랄 수 있는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와 다문화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지원 사업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도정 사업으로 장성군의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로·소하천 유지 보수,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원 확대, 소방 및 학교 그리고 자치경찰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정책제안 등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조례제정을 통해 개선하고 더 나아가 중앙 건의 등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비록 특정 정당이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이견들과 갈등 요소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어느 정당이 소속되어 있느냐 보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점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이전 반대와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발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의 발의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였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했던 집행부 공청회의 소통창구가 형식에 치우칠 때, 지방의회가 소통창구 전면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의정활동은 현장에 있다.”라는 모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정활동을 통해 도 전체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것은 향후 단체장으로서 군을 이끌어갈 리더십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민들의 공공심을 키워주고 자치정신을 함양시켜 성숙한 지역사회를 함께 가꾸어가는데 힘써 일한 도의원이라면 “행정의 달인”을 운운하는 행정이 출신들보다 민주주의와 자치를 더 잘 이끌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의회 3선 의원으로 10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군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군의회의 목소리를 도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성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평생을 군민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기에 당장은 도의원으로서 시야가 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역과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의 길도 모색하면서 더 큰 봉사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Profile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장성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장성군의회 3선 의원)
- 전 장성황룡중학교 제5대 총동문회 회장
- 현 내삼을지켜주는나라 신복지전남포럼 이사
- 전 장성라이온스클럽 46대, 47대 회장(2년)
-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낙연 특별보좌관